

백제 응진시대의 남방 재진출과 영역화 과정

金 秉 南

(종이박물관 학예연구사)

1. 머 리 말
2. 응진 천도 이전 남방 진출 상황
3. 대산성 전투와 섬진강 상류 진출
4. 서남해안 일대의 복속과 지배
5. 탐모라의 복속과 의의
6. 섬진강 하류 지역의 복속
7. 맺 음 말

1. 머 리 말

백제는 근초고왕(346~375) 이후 고구려와 지속적인 정치·군사적 대립 상황에 놓여 있었고, 개로왕(455~475) 때에 이르러서는 더욱 적극적인 고구려의 무력 공세를 받게 되었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해 백제 개로왕은 북

위에 보낸 上表文 중에서 “병화가 계속된 지가 30여 년이 됨에 재정이 탕진되고 힘은 고갈되어 나라가 점점 약해지고 위축되었다”¹⁾고 말할 정도였다. 이를 통해 개로왕 당시 백제가 고구려와 대립으로 극심한 국력 소모 상태에 빠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3년 뒤 고구려 장수왕에게 한성을 침공 당하였고, 문주왕 즉위년(475) 10월에 웅진으로 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결국 양국의 대립에서 백제가 패배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다시 고구려와 대등한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왕권 확립과 지방 지배 체제의 정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는 강력한 고구려로 인해 북으로 팽창할 수 있는 여지가 당분간 봉쇄된 상태였다. 따라서 백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처는 근초고왕의 南征 이후 영역에 편입²⁾되었던 남쪽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었다.³⁾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극심한 국력을 소모하였을 것이므로 백제는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과 자원을 공급할 곳이 필요했고, 그러한 생산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지는 남방, 즉 충청 이남의 전라도 지역 밖에 없었다. 따라서 백제는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효율적인 지배 방법이 모색되었던 것이다.

익히 알다시피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는 문주왕(475~477)과 삼근왕(477~479) 때의 다소 불안정한 시기를 거쳐서 동성왕(479~501) 때에 이르러 안정을 되찾게 된다. 『삼국사기』에 “담력이 넘치는 인물(膽力過人)”로 묘사된 동성왕은 의욕적으로 중앙집권화에 노력하여, 비록 고구려와 대등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충분한 자위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력 회복을 위해 전라도 남해안과 동부 산간 지역, 나아가서는 소백산맥을 넘어 가야 지역까지 영토화 하려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는 다음의

1) 『삼국사기』 25, 「백제본기」 3, 개로왕 18년. “... 連禍 三十餘載 財殫力竭 轉自屢蹶...”

2) 김병남, 「백제 근초고왕의 남방 정벌」, 『한일관계사연구』 15, 2001, 47~53쪽.

3) 김영삼, 「5~6세기 백제의 지방통치체제」, 『한국사론』 22, 1990, 73쪽.

무령왕(501~523) 때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웅진 천도 이후 백제가 남방 지역을 어떻게 영역화 하였는지에 대해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그리고 『양직공도』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관련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웅진 천도 이전 백제의 남방 진출 과정과 복속 지역의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보고, 다시 웅진 도읍 이후 혼란을 극복한 동성왕 때에 어떻게 남방 경영이 재개되었으며, 뒤를 이은 무령왕 때에는 남방 영역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겠다.

2. 웅진 천도 이전 남방 진출 상황

백제의 남방 진출은 근초고왕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지만 이후에도 이 지역을 영역화하려는 필요성과 노력은 계속되었다.

이해에 아화왕이 죽었다. 천황은 직지왕을 불러 “그대가 나라에 돌아가서 왕위를 이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동한의 땅을 주어 보내었다. 동한은 감라성, 고난성, 이림성이다.⁴⁾(『일본서기』 10, 웅신 16년)

위의 웅신 16년을 백제 전지왕 원년(405)으로 본다면, 이때 백제는 “동한의 땅(東韓之地)”을 새롭게 개척한 것이 된다. 이 중 감라는 익산시 함열읍(甘勿阿), 이림은 충남 예산군 대흥면⁵⁾과 전북 김제시 청하면⁶⁾으로 보는

4) 是歲 百濟阿花王薨 天皇召直支王謂之曰 汝返於國以嗣位 仍且賜東韓之地而遣之東韓者 甘羅城·高難城·爾林城是也.

5) 鮎貝房之進, 『日本書紀朝鮮地名考』, 『雜攷』7輯 上, 國書刊行會, 1937, 163쪽.

山尾幸久,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 岩波書店, 1983, 224쪽.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246쪽.

견해들을 고려하면, ‘동한지’를 대체로 금강의 남안과 만경강 일대에서 찾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甘勿이 ‘큰 물’, 즉 “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에 널리 사용되던 지명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굳이 함열로 보아야 할 근거가 희박하다. 또 감라=함열, 이림=예산 대흥으로 보더라도, 이 지역을 왜 ‘東韓’으로 불렀는지 이유가 불분명하다.

‘동한’이라는 용어는 『일본서기』 흙명 4년(543) 11월의 ‘下韓’, 5년 11월의 ‘南韓’과 연관된다. ‘임나의 下韓’ 등의 용례로 미루어, 하한·남한은 경남 하동 이동~함안 이서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⁷⁾ 이 지역이 남한(=하한)이라면, 동한은 남한의 북쪽과 동쪽 방향인 전라도 동부 산악 지역으로 좁혀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림은 임실, 고난은 진안(難珍阿), 감라는 용담(勿居)으로 보기도 하였다.⁸⁾ 물론 이림이란 지명은 『일본서기』 현종 3년(487)에도 등장하는데, 이 때 己汶의 호족⁹⁾인 임나의 那奇他甲背가 이림에서 백제인을 살해한 이유는 자신들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이 지역에 백제가 간섭·진출해 왔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림은 충남 대흥보다는 전북 남원과 가까운 임실 쪽으로 본 견해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감라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익산 함열·진안 용담 보다는 기문(남원)을 지칭¹⁰⁾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문은 甘勿·今勿 등과

노중국,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11, 고구려연구재단, 2006, 27쪽.

- 6)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61, 76~77쪽. 단 高難은 甘羅·爾林에 가까운 곳이라 보았다.
- 7) 이근우, 「웅진시대 백제의 남방경역에 대하여」, 『백제연구』 27, 1997, 57쪽.
- 8) 전영래, 「백제남방경역의 변천」, 『천관우선생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정음문화사, 1985, 145~146쪽.
- 9) 연민수, 「6세기전반 가야제국을 둘러싼 백제·신라의 동향」, 『신라문화』 7, 1990, 108~110쪽.
- 10) ‘기문’을 ‘甘羅’라 한 것은 新羅·安羅·加羅 등과 같은 격의 국가로 본 때문이란 견해도 있다(이근우, 앞의 논문, 58쪽).

같이 ‘큰 물’이라는 뜻으로, ‘甘’·‘金’·‘己’·‘巨’ 등이 ‘큰’이라는音を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高難은 곡성(谷那)으로 생각되는데, ‘阿’가 개정 지명에서 ‘安’·‘壓’으로 대치¹¹⁾되어 ‘那’가 ‘難’으로 표기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한’은 임실·남원·곡성 등 섬진강 상류의 전라도 내륙 지역¹²⁾으로, 백제가 소백산맥을 넘어 함양→거창→합천, 함양→산청→진주 등이나, 섬진강으로 남하해서 하동→진주→함안으로 진출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요지였다.

이러한 진출을 바탕으로 백제는 비유왕 23년(449)에 전국적인 지방제도 개편에 착수하였다. “국군의 강역을 나누고(分國郡疆場)”¹³⁾ 鄉土에서 나는 것을 기록하려면, 각각의 ‘國郡’에 관리를 파견하여야만 가능한 일로, 이는 백제 영역의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다. 따라서 강력한 왕권의 주도 아래 추진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었는데, 역시나 정변에 의한 비유왕(427~455)의 죽음¹⁴⁾과 개로왕(455~475)의 등장으로 중앙 정치가 혼란에 빠지자 당분간 지방 통제는 다시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백제의 본격적인 지방 지배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지만 웅진 천도 이후 강력히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11) 유창균, 『삼국시대의 한자음』, 민음사, 1991, 373쪽.

12) 박순발, 「4~5세기 한국 고대사와 고고학의 몇 가지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24, 2001, 23쪽.

13) 『일본서기』 11, 인덕 41년 3월.

14) 천관우, 「삼한의 국가 형성」 하, 『한국학보』 3, 일지사, 1976, 139쪽.

이도화, 「한성말 웅진시대 백제왕위계승과 왕권의 성격」, 『한국사연구』 50·51, 1985, 3쪽.

3. 대산성 전투와 섬진강 상류 진출

웅진 천도 후 문주왕과 삼근왕 때의 혼란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고 왕위에 오른 동성왕(479~501)은 서서히 왕권 강화와 지방 지배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러한 징후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겨울 10월에 대궐 남쪽에서 크게 군대를 사열하였다.¹⁵⁾(『삼국사기』 26, 「백제본기」 4, 동성왕 8년)

동성왕 8년(486)에 대궐 남쪽에서 군대를 크게 사열하였다는 것은 서서히 왕권 행사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남방 진출에 나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대산성 전투(487)는 백제가 남방으로 진출하기 위한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전투의 성격과 관련 지명의 위치 추정 등에 대해서 다양한 설이 제시되어 왔다.

이해 紀生磐宿禰가 임나에 있다가 고구려와 통하였다. 서쪽으로 삼한의 왕이 되려고 하여, 관부를 정비하고 스스로 神聖이라 칭했다. 임나의 左魯那奇他甲背 등의 계락을 이용해서 백제의 適莫爾解를 이림에서 살해했다. 이림은 고구려의 땅이다. 대산성을 쌓아 동쪽 길을 막았다. 식량을 운반하는 항구를 차단하여 (백제의) 군사를 기아에 빠뜨렸다. 백제왕이 대노하여 領軍 古爾解, 內頭 莫古解 등을 보내 무리를 이끌고 대산을 공격했다. 이에 기생반숙네는 진군하여 역공했다. 용기가 더욱 나서 향하는 바 모두 격파했다. 일당백이었다. 조금 지나 병사는 힘이 다하니 일이 그르칠 것을 알고 임나로부터 돌아왔다. 이로 인하여 백제국은 좌로 나기타갑배 등 3백여 인

15) 冬十月 大關於宮南

을 죽였다.¹⁶⁾(『일본서기』 15, 현종 3년)

우선 위의 사료에서는 紀生磐宿禰라는 인물이 눈에 띈다. 그는 “임나에 있으며(跨據任那)” 삼한의 왕이 되려고 백제와 싸웠다가 패한 후 결국 왜로 돌아갔다고 나타나는데, 종래 일본 학계에서는 이를 통해 임나 지역에 대한 왜의 강한 군사적 개입을 상정하고, 이 사건의 결과 임나에서 왜 세력이 쇠퇴한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¹⁷⁾

또 『일본서기』의 紀氏 관계 사료의 전체적인 검증을 통해서 기씨의 선조가 대화 정권의 외정과 한반도 경략에 관여했던 것은 아닐까 추정하기도 한다.¹⁸⁾ 그러나 현재의 와카야마(和歌)현 키노천(紀川)의 키이(紀伊) 지역에 있는 이와바시센즈카(岩橋千塚) 고분군에서는 엄청난 양의 한반도 관련 유물들이 나왔다. 따라서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는 紀氏의 한반도 경영보다는 오히려 한반도로부터 대거 이주한 紀氏系 집단이 자신의 습속을 오랫동안 유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¹⁹⁾

여기에 『고사기』 孝元紀나 『일본서기』 孝德 大化 5년(649) 등에도 ‘키노오미(紀臣)’를 ‘키노오미(木臣)’라고 표기하여 ‘紀’자가 원래는 ‘木’자로도 쓰였음을 보여준다. ‘紀’와 ‘木’은 일본음으로 모두 ‘키’라고 발음되기 때문에 ‘紀氏’=‘木氏’의 상정이 가능²⁰⁾한데, 『수서』에 보이는 木氏は 백제 8대성

16) 是歲 紀生磐宿禰 跨據任那 交通高麗 將西王三韓 整備官府 自稱神聖 用任那左魯那奇他甲背等計 殺百濟適莫爾解於爾林爾林高麗地也 築帶山城 距守東道 斷運糧津 令軍飢困 百濟王大怒 遣領軍古爾解·內頭莫古解等 率衆趣于帶山攻 於是 生磐宿禰 進軍逆擊 膽氣益壯 所向皆破 以一當百 俄而兵盡力竭 知事不濟 自任那歸 由是 百濟國殺佐魯那奇他甲背等三百餘人.

17) 末松保和, 앞의 책, 105쪽.

18) 岸俊男, 「紀氏に關する一考察」, 『日本古代政治史研究』, 塙書房, 1966, 99~108쪽.

19) 金鉉球,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1985, 99~108쪽.

20) 주보돈, 「『일본서기』의 편찬 배경과 임나일본부설의 성립」, 『한국고대사연구』 15, 1999, 38쪽.

김현구, 『백제는 일본의 기원인가』, 창작과비평사, 2002, 91쪽.

중의 하나로 『일본서기』에도 등장한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건대, 위의 기사는 기씨가 중심이 된 왜의 한반도 남부 지배보다는 백제인으로 추정²¹⁾되는 紀生磐의 반란 사건²²⁾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 전투는 백제의 임나 방면 진출과 관련된 것으로, 한반도 내부의 백제와 임나 문제로 국한하여 볼 수 있다.

紀生磐이 “삼한의 왕이 되려고 관부를 정비하였다”는 등 조작 혐의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추정해 보면, 임나의 左魯 那奇 他甲背 등은 백제의 適莫爾解를 이림에서 살해하고 대산성을 쌓아 東道를 지켜 백제가 식량을 운반하는 항구를 차단하고 군사를 기아에 빠지게 했으며, 이에 백제왕은 크게 노하여 領軍 古爾解, 內頭 莫古解 등을 파견하여 대산을 공략하였고, 결국 백제는 임나의 左魯 那奇 他甲背 등 3백여 인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이 된다.

그렇다면 수장층으로 생각되는 좌로 나기타갑배의 임나는 과연 어디일까? 이와 관련하여 『일본서기』에는 임나라는 지명이 넓게는 가야 제국 전체를 가리키거나 좁게는 금관가야 한 나라만을 가리키고, 때에 따라서는 소재가 불확실한 가야 諸國의 어느 한 국가, 혹은 가야 영역내 하나의 재지 세력, 즉 소국을 가리키기도 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나의 소재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함께 등장하는 이림과 대산성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 밖에 없다. 우선 이림은 임나인 좌로 나기타갑배가 백제인 적막이해를 살해했던 곳이기 때문에 백제와 임나의 경계에서 그다지 떨어지지 않은 지역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림을 전북 김제나 충남 예산군 대흥면으로 볼 경우, 임나가 만경강 유역의 전북 서북 해안에 가까운 곳이거나 나아가서는 금강과 차령

21) 천관우, 『가야사연구』, 일조각, 1991, 37쪽.

백승충, 『6세기 전반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백제연구』 31, 2000, 61쪽.

22) 백제의 한 지방 세력이 독립을 꾀하다가 토벌되었다고 본 견해가 있다(김태식, 앞의 책, 113쪽).

산맥을 넘어 아산만으로 흘러드는 무한천변까지 진출한 것이 되어 믿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림의 위치에 의거하면, 대산성을 전북 정읍시 태인면²³⁾이나 경북 성주²⁴⁾ 추풍령 부근²⁵⁾으로 본 것 또한 부정할 수밖에 없다. 대산성의 위치는 사건 경과로 보아 이림과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림을 친 후, 그곳에 대산성을 쌓아 백제의 공격에 대비하였던 점을 감안해야만 한다. 더군다나 위의 기록에 “대산성을 쌓고 동도를 지켰다”는 구절의 ‘東道’는 일본음이 ‘야마토지(ヤマトチ), 즉 ‘야마토미치(ヤマトミチ: 大和道)’로 백제의 대일 교통로와 관련된 것이고, “식량을 운반하는 항구를 차단하여”라는 구절은 하천을 이용한 백제군의 군량 운송을 임나군이 차단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²⁶⁾

이러한 정황들은 대산성이 강을 끼고 있는 지역²⁷⁾이었음을 추측케 하여, 이림을 섬진강 유역의 임실²⁸⁾로 보는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임나 또한 섬진강 상류역의 서남쪽인 임실·남원 지역에 존재했던 가야의 한 소국 내지는 재지 세력이라 추정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이림과 대산성의 위치를 추정하는 것은 백제가 임실 → 남원 → 함양 → 거창 → 고령이나, 임실 → 남원 → 함양 → 산청 → 진주 그리고 임실 → 남원 → 구례

23) 末松保和, 앞의 책, 106~107쪽.

24) 천관우, 앞의 책, 83~85쪽.

山尾幸久, 앞의 책, 224쪽.

25) 大山誠一, 「所謂“任那日本府”について」, 『古代文化』 32-11, 1980, 32쪽.

26)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1998, 168쪽.

27) 이와 관련하여 금강 상류 지역인 진안군 용담면 月溪里山城을 대산성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곽장근, 「금강 상류지역으로 백제의 진출과정 연구」, 『호남고고학보』 18, 2003, 103~105쪽). 그러나 월계리산성이 전략적으로나 교통로상으로나 금강 상류 지역에서 중요한 요충지이더라도, 이림(임실)과 월계리산성의 거리차가 상당하다는 점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게 만든다.

28) 이영식,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한국고대사논총』 7, 1995, 207쪽.

김예경, 「6세기 백제의 가야진출과 그 성격」, 『이화사학연구』 27, 2000, 140쪽.

주성지, 「웅진시대 백제의 섬진강 수계 진출」, 『경주사학』 22, 2003, 47쪽.

→ 하동 → 진주 → 함안으로 이어지는 가야 지역 진출의 최초 관문이 바로 섬진강 상류역 부근이기 때문이다.

조금 나중의 기록이지만 『일본서기』 계체 7년(513)에 보이는 임나의 一國人 기문을 남원으로 보는 견해를 따르면,²⁹⁾ 거리상 대산성 전투와 관련된 임나국을 기문으로 볼 수도 있게 된다.³⁰⁾

- ① 괘지지에 말하기를 웅진하는 나라의 동쪽 경계에서 시작하여 서남으로 흘러 나라 북쪽 100리를 지나 다시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넓은 곳은 3백 보로 그 물은 지극히 맑다. 또 기문하가 나라 안에 있어 나라 남쪽 산에서 시작하여 동남으로 흘러 대해에 들어간다...³¹⁾ (『한원』, 백제전)
- ② ...國中의 군현에 22담로가 있는데 자제·종족에게 나누어 다스리게 하였다. 주변 소국인 반과·탁·다라·전라·사라·지미·마련·상사문·하침라 등이 귀부하였다...³²⁾ (『양직공도』, 백제국사)
- ③ 남원소경은 본래 백제 고룡군으로 신라가 병합하여 신문왕 5년에 처음 소경을 두고, 경덕왕 16년에 남원소경을 두니, 지금의 남원부이다.³³⁾ (『삼국사기』 36, 「잡지」 5, 지리 3, 전주)

29) 今西龍, 「己汶伴跋考」, 『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1970, 375~390쪽.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己汶을 甘文(경북 기령)으로 보았는데(『加羅疆域考』, 같은 책, 252~258쪽), 이에는 김현구가 동조한다(『백제의 가야진출에 관한 일고찰』, 『동양사학연구』 70, 2000, 128쪽).

30) 전영래는 현종 3년의 임나를 기문(남원)으로 보고, 남원의 북방 임실군 領縣인 靑雄縣과 남방 곡성군 屬縣인 구례의 옛이름이 각각 居斯勿, 仇次禮로 己汶과 유사음이라 보아 세력권 내에 포함시켰다(앞의 논문, 145~147쪽).

31) 括地志曰 熊津河源出國東界 西南流 經國北百里 又西海入海 廣處三百步 其水至清 又有基汶河在國 源出其國 源出其國南山 東南流大海...

32) ...於國中郡縣有二十二檀魯 分子弟宗族爲之 旁小國有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已汶·下枕羅等附之...

33) 南原小京 本百濟古龍郡 新羅井之 神文王五年 初置小京 景德王十六年 置南原小京 今南原府.

사료 ①의 웅진하는 ‘西流入海’ 한다는 것으로 보아 금강을 가리키고, 기문하는 ‘東南流入大海’ 한다는 표현으로 보아 섬진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문은 기문하(섬진강) 유역과 관련하여 찾아야만 한다.

사료 ②의 上巳汶도 『신찬성씨록』에 나오는 上巳汶의 오기로 여겨지는데,³⁴⁾ 『양직공도』는 梁의 원제(552~554)인 蕭繹이 형주자사 때(526~536) 만든 기록³⁵⁾이므로, 이를 따르면 늦어도 서기 520~30년대에 기문이 백제의 부용국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료 ③의 ‘古龍’이란 지명 또한 평양의 을밀대가 ‘웃미르덕(上龍堰)’의 음사라고 본 견해³⁶⁾를 참고하면, 고통의 ‘용’이 ‘미르(mil)’=‘물(水)’과 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럴 경우 己汶·奇物의 ‘汶(物)’과 음·훈 모두 합치하는 점은 기문=고룡(남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이외에도 남원에는 蛟龍山·居寧川 등 기문과 통하는 지명이 남아 있고, 신라가 군사·행정적 중심으로서 남원소경을 설치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실들도 많은 참고가 된다.³⁷⁾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정황과 근거는 동성왕 9년(487)의 대산성 전투가 백제와 임나의 한 세력인 기문국 사이에 벌어진 사건임을 보여준다. 남원과 임실을 아우르는 재지 세력인 임나의 기문국은 북쪽 경계 부근까지 진입하여 주둔하던 백제의 변경 수비대장 격인 適莫爾解를 이림(임실)에서 죽인 후 그 배후에 대산성을 쌓았고, 이에 백제는 반격을 가하여 수장인 좌로 나기타갑배 등 3백여 인을 죽이고, 아예 이 지역에 진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34) 『新撰姓氏錄』, 左京皇別下 吉田連條下. “任那國奏曰 臣國東北有三己汶地上己汶·中己汶·下己汶 地方三百里”. 한편, 『續日本後紀』 仁明 4년 6월에도 三己汶으로 나온다.

35) 이흥직, 『양직공도논고』, 『한국고대사의 연구』, 신구출판사, 1971, 409쪽.

36) 양주동,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1965, 427쪽과 814쪽.

37) 백승충, 『가라국과 우륵십이곡』, 『부대사학』 19, 1995, 62~63쪽.

4. 서남해안 일대의 복속과 지배

고고학적으로 서남해 지역에서는 서기 5세기 중엽 이후 장고분이나 백제 계통과는 다른 형태의 석실분이 조영되고, 장성 영천리, 광주 월계동·쌍암동, 승주 대곡리 등에서는 서부 경남 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대가야계 토기가 조사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서남해의 재지 사회가 백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가야나 왜를 비롯한 기타 세력들과 다양하면서도 독자적인 대외 교섭을 진행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³⁸⁾

그런데 동성왕의 등장과 더불어 섬진강 상류인 대산성에 진출(487)한 성과는 곧바로 백제 남방의 여러 재지 세력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가을에 풍년이 들었다. 나라 남쪽 바닷가 마을 사람이 이삭이 맞붙은 벼를 바쳤다. 겨울 10월에 왕이 제단을 만들어 천지 신령에게 제사를 지냈다.³⁹⁾ (『삼국사기』 26, 『백제본기』 4, 동성왕 11년)

그 결과 동성왕 11년(489)에는 “남쪽 바닷가 마을 사람(國南海村人)”이 “이삭이 맞붙은 벼(合穎禾)”를 바쳤다고 나오게 되었다. 고대 사회에서 현상이 복속의 의미인 점을 고려하면, 위의 기사는 일단의 유력자가 백제에 귀부를 청하였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그 유력자가 ‘남해촌인’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위치는 전라도 서남해 일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럴 경우는 백제의 영향력이 서남해안 일대에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더불어 당시 백제에는 풍년까지 들었다는 것으로 보아 국부도 충실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은 동성왕에게 왕권의 행사와 대외

38) 문안식, 『백제의 왕·후제 시행과 지방통치방식의 변화』, 『역사학연구』 27, 2006, 50쪽.

39) 秋 大有年 國南海村人獻合穎禾 冬十月 王設壇祭天地.

관계의 진행에 자신감을 주었으리라 여겨진다. 동성왕 자신이 제단을 설치하고 ‘하늘과 땅(天地)’에 대한 제사를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동성왕의 입장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이 남방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로 작용하였으리라 여겨지며, 나아가 백제가 진출하거나 복속한 재지 세력의 지역을 더욱 공고히 다스리려는 작업도 병행하였으리라 추측되는데, 이때 주목되는 것이 바로 王·侯號 제수 기록이 아닐까 한다.

… 朔寧將軍 面中王 姐瑾은 정치를 두루 잘 보좌하였고, 무공 또한 뛰어났으니 이제 假行冠軍將軍 都將軍 都漢王이라 하였고, 建威將軍 八中侯 餘古는 젊을 때부터 임금을 도와 충성과 공로가 진작 드러났으므로 이제 假行朔寧將軍 阿錯王이라 하였고, 建威將軍 餘歷은 친성이 충성되고 정성스러워 문무가 함께 두드러졌으므로 이제 假行龍驤將軍 邁盧王이라 하였으며, 廣武將軍 餘固는 정치에 공로가 있고 국정을 빛내고 드날렸으므로 이제 假行建威將軍 弗斯侯라 하였습니다…⁴⁰⁾ (『남제서』 58, 「열전」 39, 동남이, 동이, 백제)

… 이제 沙法名을 假行征虜將軍 邁羅王으로, 贊首流를 假行安國將軍 辟中王으로 解禮昆을 假行武威將軍 弗中侯로 삼고, 木干那는 과거에 군공이 있는 데다 또 성문과 선박을 때려 부수었으므로 行廣威將軍 面中侯로 삼았습니다…⁴¹⁾ (같은 책, 백제)

『남제서』 기록에는 백제가 동성왕 12년(490)에 면중왕 저근을 도한왕, 팔중후 여고를 아착왕, 건위장군 여력을 매로왕, 여고를 불사후로 제수하

40) … 朔寧將軍面中王姐瑾 歷贊時務 武功竝列 今假行冠軍將軍都將軍都漢王 建威將軍八中侯 餘古 弱冠輔佐 忠効夙著 今假行朔寧將軍阿錯王 建威將軍餘歷 志款有素 文武烈顯 今假行龍驤將軍邁盧王 廣武將軍餘固 忠効時務 光宣國政 今假行建威將軍弗斯侯 …

41) … 今假沙法名行征虜將軍邁羅王 贊首流爲行安國將軍辟中王 解禮昆爲行武威將軍弗中侯 木干那前有軍功 又拔臺筋 爲行廣威將軍面中侯 …

고, 또 동성왕 17년(495)에도 사법명을 매라왕, 찬수류를 벽중앙, 해례군을 불중앙, 목간나를 면중후로 제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나타난다.

이 왕·후호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명과 관련된다고 보아 왔다. 그래서 아찰은 壓海(阿次山郡; 목포), 매로(매라)는 馬西良縣(군산 옥구)이거나 馬斯良縣(장흥 회녕), 불사(불중앙)는 比斯伐·比自火로 보아 전주나 分巉郡(보성)으로, 도한은 고흥(금산 豆旌)과 分嶺郡(나주 서쪽 30여리의 豆旌), 면중은 무진주(광주), 武尸伊郡(영광), 未冬夫里(나주 남평), 勿阿兮(무안), 勿居(진안 용담) 등이, 팔중은 發羅郡(나주시 반남면)과 연관시켜 추정하였다.⁴²⁾

이러한 위치 추정 중에서 弗斯(弗中)=전주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비사벌주(경남 창녕)를 완산주(전주)로 착각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잘못된 지명 추정임을 알 수 있다.⁴³⁾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삼국사기』 지리지의 魯山州(익산·김제·완주 일대) 6현 중 하나인 아찰현, 도독부 13현 중의 매라현(군산 옥구), 그리고 벽중앙(김제)·면중(광주), 팔중·도한(나주 일대)을 고려하면, 동성왕 12년(470)과 17년(495)의 작호 제수 요청은 응진을 중심으로 한 방어 체제 구축 및 전라도 서남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과 밀접히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즉 벽중앙(만경강 이남 김제)·아찰(만경강 이북 김제·완주)·매라(금강 하류의 군산 옥구)와 같은 전북 일대는 근초고왕 때에 이미 백제에 편입된 지역으로, 수도인 응진(공주)에서 가까워 도성의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리라 여겨지며, 반면에 팔중·도한(나주), 면중(광주) 등의 전남 일대는 근초고왕 이래 관련을 맺지만 응진 천도 후 완전한 영역으로 편입된 지역⁴⁴⁾이었다.

42) 末松保和, 앞의 책, 110~113쪽.

43) 김병남, 「백제 동성왕대의 대외 진출과 영역의 확대」, 『한국사상과 문화』 22, 2003, 226~227쪽.

44) 영산강 유역의 문화 양상으로 보더라도, 전남 일대가 백제 영토로 편입된 시기는 동성왕 때의 왕·후호 제수 시기와 근접한다(임영진, 「마한의 형성과 변천에 대한 고고학적 고

더군다나 이 시기 왕·후에 임명된 인물이 餘古, 여력, 餘固, 사법명, 해례곤, 목간나 등 중앙의 왕족과 해씨, 사씨, 목씨 등 대성 8족의 귀족들이었다는 점은 백제가 웅진으로 남천한 이후에 새로이 획득한 지역 내지 적극적으로 경영하고자 한 지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미루어 짐작케 한다. 다만 동성왕이 이들 지역을 장악한 후 곧바로 직접 통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왕·후제를 시행한 것은 지방 통치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는 개로왕대에 활용된 왕·후제에서 보듯이 고구려의 군사 위협 극복과 영토 확장을 통한 국력 강화라는 절실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의 하나로 활용되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5. 탐모라의 복속과 의의

동성왕 17년(495)을 기점으로 백제는 광주·나주 등 전남 지역에도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시 동성왕 20년(498)에는 탐라(탐모라)의 복속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여름 4월에 탐라국에서 토산물을 바치자 왕이 기뻐하여 사신을 은솔로 삼았다.⁴⁵⁾ (『삼국사기』 26, 「백제본기」 4, 문주왕 2년)

8월에 왕이 탐라에서 공납과 조세를 바치지 않자 직접 치려고 무진주에 이르니 탐라에서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사죄하므로 중지하였다. 탐라는 곧 탐모라이다.⁴⁶⁾ (『삼국사기』 26, 「백제본기」 4, 동성왕 20년)

찰], 『한국고대사연구』 10, 1995, 119쪽).

45) 夏四月 耽羅國獻方物 王喜 拜使者爲恩率.

46) 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 親征 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耽羅即耽牟羅.

위의 기록을 토대로 종래 학계에서는 탐라(제주도)⁴⁷⁾가 문주왕 내지는 동성왕 때에 복속한 것으로 파악해 왔다. 그런데 동성왕 20년(498)에 백제가 응징하려고 한 탐라(탐모라)가 제주도라면, 이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무진주에서 다시 강진이나 목포 등 해안을 통해 바다를 건너 공격해야만 하기 때문에, 무진주에 백제군이 도착하였던 소식 자체가 제주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군이 무진주에 도착하자마자 탐라가 항복하였다는 것은, 탐라의 위치가 제주도가 아니라 무진주와 가까운 지역임을 뜻한다. 따라서 동성왕 20년 기사의 말미에 ‘탐라’를 ‘탐모라’라고 한 細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의 세주는 동일한 것에 대한 다른 표현 혹은 어떤 사실에 대한 다른 내용을 전할 때 ‘一曰’·‘或云’·‘一云’·‘一名’·‘一作’·‘又云’이라고 병기한다. 그런데 “耽羅卽耽牟羅”라는 세주는 이칭을 전하는 게 아니라, “탐라라고 하는 것은 탐모라다”는 ‘찬자의 판단’을 보여준다.⁴⁸⁾ 다시 말해 “탐라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주도가 아닌 탐모라를 뜻한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이처럼 탐라(탐모라)가 제주도가 아니라면,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 근초고왕대에 등장하는 ‘南蠻 枕彌多禮’이다. 침미다례가 남만이라고 불린 이유는 끝까지 백제에 저항하였기 때문이었다.⁴⁹⁾ 고고학적으로도 서기 5세기 후반 내지 6세기초 이 지역에 웅관을 매장 주체로 하는 토광묘(토축묘)가 석실분으로 교체되기 시작하였다는 점도 백제와의 적대감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거리상으로도 동성왕이 무진주(광주)에 이르자 탐모라(강진·해남)가 사죄하였다는 내용이 별다른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또 『양직공도』에서도 ‘上己文·下枕羅’라고 상·하로 연칭되는 점을 고려하면, 남원·임실이 상기문이므로 남쪽의 하침라는 강진·해남일 수밖에 없다. 따라

47) 이기백·이기동, 『한국사강좌』 I 고대편, 일조각, 1982, 179쪽.

48) 이근우, 앞의 논문, 53쪽.

49)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120쪽.

서 ‘침라’ 역시 ‘침미’·‘탐라’와 같은 실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주왕 2년(476)의 탐라국도 제주도가 아닐 수 있다. 이 시기는 백제가 고구려의 공세에 밀려 웅진으로 천도함에 따라 북쪽으로 세력을 뻗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탐라로서도 백제가 자기들이 있는 남방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 예상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우연히 바다 건너 제주도의 탐라가 방물을 바쳤다가 보다는 웅진 천도와 관련하여 탐라(강진·해남 일대)가 백제의 동향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과정에서 미리 백제와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한다. 문주왕이 기뻐하며 사자에게 관위를 내린 이유도, 개로왕의 전사와 한성 함락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다시 國基를 다져야 할 입장에 전라도 지역의 유력한 세력이 먼저 관계 개선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문주왕 2년과 동성왕 20년에 등장하는 탐라를 강진·해남으로 보면,⁵⁰⁾ 10년 뒤인 계체 2년(508)의 탐라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12월에 남해 가운데의 탐라인이 처음으로 백제국과 통교하였다.⁵¹⁾ (『일본서기』 17, 계체 2년)

왜와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위의 내용은 『일본서기』에서 자주 인용하던 백제 3서 중 하나인 「百濟本記」를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데, 여기에서는 탐라가 남쪽 바다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하여, 비로소 섬(제주도)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동성왕 20년(498)에 탐모라(강진·해남)가 백제의 지배하에 들어간지 10년 뒤인 무령왕 8년(508)에 ‘남해의 탐라’인 제주도가 백제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50) 이근우는 강진·해남의 이칭으로 보았는데(앞의 논문, 52~53쪽) 이에는 문안석도 동조한다(「백제의 영산강유역 진출과 토착세력의 추이」, 『전남사학』 16, 2001, 24~25쪽). 그러나 송태갑은 해남의 북일면 일대로 공간을 한정하였다(「해남반도의 고대사회와 대외 관계」, 『전남사학』 18, 2002, 21쪽).

51) 十二月 南海人中耽羅人 初通百濟國.

그렇다면 동성왕은 왜 강진·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耽牟羅(=枕羅=枕彌)를 복속시키고자 노력하였던 것일까? 이는 아마도 당시의 지역구도 재편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문주왕 2년(476)에 복속되었던 탐모라가 동성왕 때에 태도를 바꾸어 백제에 대항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것은, 동성왕 1년(479)에 고령의 대가야왕 荷知가 남제와 독자적 통교를 단행하는 등 지역의 대외 교역과 주도권 재편을 위한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다. 대가야와 남제의 직접 통교는 남제(중국)↔대가야(고령)↔탐모라(강진·해남) 나아가서는 왜까지 이어지는 국제 교역과 교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남해안 일대의 국제 교류가 백제를 배제된 상태에서 대가야 주도로 남제↔탐모라↔대가야↔왜의 연결 고리를 갖게 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백제에 복속된 전라도 일대의 재지 세력들에게도 미쳐, 이들이 백제로부터 이탈할 경우 자칫 백제가 고립무원에 빠지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다. 이는 웅진 천도 이후 추진된 백제의 국력 회복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대가야 주도의 교류 체계 형성 움직임을 넘어 적극적으로 추진된 남방의 재진출과 영역화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백제로서는 국력 신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남방 세력권의 이탈을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인데, 탐모라가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시도를 엿보이자 마침내 동성왕 20년(498)에 전라도 일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백제 우위의 교류 구도를 구축할 목적으로 직접 무진주(광주)에 이르러 무력을 과시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 결과 백제는 중국과 대가야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를 차단할 수 있었고, 다시 이를 토대로 무령왕 때에는 삼진강 하류 지역의 대가야 세력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6. 섬진강 하류 지역의 복속

웅진 천도 이후 동성왕 때에 이르러 대산성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섬진강 상류역에 진출하였고, 다시 탐모라의 복속을 계기로 남해안 일대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게 된 백제는 다시 무령왕(501~523) 때에 이르러서는 이를 바탕으로 섬진강 하류 지역에 대한 진출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시켰다.

㉔ 겨울 12월에 백제가 ... 따로 표문을 올려 임나국의 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의 4현을 청하였다. 哆唎國守 穗積臣押山이 주청하여 말하길 “이 4현은 ... 지금 백제에 주어 한 나라로 만들면 보존의 계획이 이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 표문에 따라 임나 4현을 주었다...⁵²⁾ (『일본서기』 17, 계체 6년)

㉕ 여름 6월에 백제가 ... 별도로 주청하기를 “반과국이 신국의 기문 땅을 빼앗으니, 부디 친은으로 판단하여 본국에 속하게 해 주옵소서...” 겨울 11월에 조정에서 ... 기문·대사를 백제국에 주었다. 이 달에 반과국에서 戡支를 보내 보석을 바치며 기문의 땅을 달라고 하였으나 끝내 주지 않았다.⁵³⁾ (같은 책, 계체 7년)

㉖ 3월에 반과가 자탄·대사에 성을 쌓아 만해에 연결하고 봉화와 무기창고를 만들어 日本에 대비하였다. 또 이열비·마수비에 성을 쌓고 마차해·추봉에 연결하였다. 사졸과 병장기를 모아 신라를 압박하여 남녀를 납치하고 촌락을 약탈하였다...⁵⁴⁾ (같은 책, 계체 8년)

52) 冬十二月 百濟 ... 別表請任那國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 四縣 哆唎國守穗積臣押山奏曰 此四縣 ... 今賜百濟 合爲同國 固存之策 無以過此 ... 依表賜任那四縣 ...

53) 夏六月 百濟 ... 別奏云 伴跋國略奪臣國已汶之地 伏願 天恩判還本屬 ... 冬十一月辛亥朔乙卯 於朝廷 ... 以已汶·滯沙 賜百濟國 是月 伴跋國 遣戡支獻珍寶 乞已汶之地 而終不賜.

54) 三月 伴跋築城於子吞·帶沙 而連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復築城於爾列比·麻須比 而經

㉔ 여름 4월에 物部連이 대사강에 머문 지 6일만에 반과가 군사를 일으켜 공격해 와 의복을 벗기고 소지품을 빼앗고 장막을 불태우니 物部連 등이 ... 겨우 생명을 보전하여 문모라에 정박하였다. 문모라는 섬의 이름이다.⁵⁵⁾ (같은 책, 계체 9년)

㉕ 여름 5월에 백제가 전부 木荔不麻甲背를 보내 物部連 등을 기문에서 맞이하여 위로하고 (백제)국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 가을 9월에 백제가 州利郎次 장군을 보냈는데 物部連과 함께 와서 기문의 땅을 준 것을 사례하였다...⁵⁶⁾ (같은 책, 계체 10년)

㉖ 봄 3월 ... 이 달에 物部伊勢連父根, 吉士老 등을 보내 (다사)진을 백제 왕에게 주니, 가라왕이 칙사에게 “이 항구는 관가를 둔 이래 신이 조공 길로 쓴 항구인데 어찌 쉽게 이웃나라에 주어 원래 정해진 경계를 위배케 합니까” 하고 말하므로 칙사 父根 등이 이로 인해 (백제에) 주는 것이 어려워 大島로 물러났으나 따로 기록관을 보내 扶余에게 주었다. 이 때문에 가라는 신라와 맺어 일본을 원망하였다. 가라왕이 신라왕녀에게 장가를 들었다...⁵⁷⁾ (같은 책, 계체 23년)

사료 ㉔는 임나 4현, 사료 ㉕~㉖는 기문·대사, 사료 ㉖는 다사진 할양 기사이다. 이 중에서 사료 ㉕~㉖와 ㉖는 지명·인명 등 전체적인 내용이 동일하다.⁵⁸⁾ 기문·대사를 놓고 다툼을 벌인 주체가 백제의 입장이 반영된

麻且奚·推封 聚士卒兵器 以逼新羅 駟略子女 剝掠村邑 ...

55) 夏四月 物部連於帶沙江停住六日 伴跛與師往伐 逼脫衣裳 劫掠所齋 盡燒帷幕 物部連等 ... 僅存身命 泊汶慕羅汶慕羅 嶋名也.

56) 夏五月 百濟遣前部木荔不麻甲背 迎勞物部連等於己汶 而引導入國 ... 秋九月 百濟遣州利郎次將軍 副物部連來 謝賜己汶之地 ...

57) 春三月 ... 是月 遣物部伊勢連父根·吉士老等 以津賜百濟王 於是 加羅王謂勅使云 此津 從置官家以來 爲臣朝貢津涉 安得輒改賜隣國 違元所封限地 勅使父根等 因斯 難以面賜 却還大嶋 別遣錄史 果賜扶余 由是 加羅結僮新羅 生怨日本 加羅王娶新羅王女 ...

58) 김현구, 『《일본서기》 계체 23년조의 검토-고령가야와 반과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23, 2003, 8쪽.

부분에서는 백제와 반파, 가야 쪽이 반영된 부분에는 부여와 가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부여는 백제를 뜻하고 반파는 대가야를 의미함을 짐작할 수 있다. 반파국은 『양직공도』에 ‘叛波’로 나오는 고령의 소국으로서 『삼국지』 변진조의 (弁辰)半路國이라고 추정⁵⁹⁾되는 곳이다. 요컨대 ㉠~㉡와 ㉢의 양 사료군은 동일 사건에 대해 계통을 달리하는 전승 사료를 취한 『일본서기』 찬자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료 ㉣는 시기적으로 무령왕 12년(512)에 해당하는데, 上哆利·下哆利·娑陀·牟婁 등을 전남 지역으로 추정하여 임나 4현의 활양이란 실은 백제의 영유를 왜가 승인한 것을 의미하며,⁶⁰⁾ 이 시점까지도 이를 왜가 지배하였다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삼국사기』 동성왕 20년(498) 8월에 백제가 무진주(광주)까지 진출하여 탐모라(강진·해남)를 복속시켰던 사실은 이미 서기 5세기 말 단계에 전남 지역이 백제의 지배권 아래에 놓여 있었음을 뜻하기에 광역의 임나 4현과 왜의 지배를 상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런 모순에서 벗어나고자 임나 4현을 전남이 아닌 낙동강 중·하류 방면으로 추정하는 견해⁶¹⁾도 있지만 기문·대사가 섬진강 방면임을 감안하면 임나 4현과 기문·대사의 두 지역을 따로 분리시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기문·대사와 분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타를 곡성(沙圖),⁶²⁾ 구례,⁶³⁾ 순천(歙平·沙平)⁶⁴⁾ 중의 하나로, 모루는 馬老(광양)⁶⁵⁾로, 상치리

59) 吉田東伍와 那珂通世의 견해를 이병도(『삼한문제의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274쪽)가 계승·통설화 하였다. 단 이들은 반로국을 星州로 보았다.

60) 末松保和, 앞의 책, 115~123쪽.

61) 錢觀宇, 앞의 책, 40~44쪽.

62) 酒井改藏, 『日本書紀の朝鮮地名』, 『親和』 195, 1970, 15쪽.

63) 末松保和, 앞의 책, 122쪽.

64) 錢英래, 앞의 논문, 146쪽.

65) 『신증동국여지승람』 40, 광양현 건치연혁.

와 하치리는 각기 突山縣(돌산도)과 麗水廢縣⁶⁶⁾으로 지역을 축소하여 보는 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보면 무령왕 12년(512)에 백제는 섬진강 하류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뜻한다.

하지만 사료 ㉔~㉞에서 보듯이, 백제는 기문(남원)·대사(하동)의 섬진강 중·하류 지역에서 반파(대가야)의 저항에 부딪치고 만다. 『일본서기』 현종 3년(487)에 백제에 복속되었던 기문(남원)이 무령왕 13년(513)에 해당하는 사료 ㉔에서는 반파(대가야)에게 넘어간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시기 반파(고령)의 성장은 서기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 고령·합천·거창·함양·남원·삼가 등 북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細長方形 수혈식 석곽묘의 묘제와 二段直列透窓有蓋高杯·有蓋長頸壺·器臺·단추형꼭지蓋 등의 전형적인 고령식 토기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⁶⁷⁾ 이 토기의 분포가 반드시 정치적 영역을 뜻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고령과 경제·문화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맺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다시 정치적 관계로 진전될 가능성도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기 5세기 이후 대가야식 토기가 출토된 지역은 일단 대가야의 영향권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대가야는 고령과 함께 합천을 중심으로 한 황강 유역권, 거창·함양·산청, 지리산 주변의 남강 상류 및 진주의 남강 중류권, 고성의 남해안권, 하동을 중심으로 한 섬진강권, 나아가서는 일시적이지만 장수·진안·임실의 금강 상류권까지도 아우르는⁶⁸⁾ 연맹체의 수장으로서 백제와 직접 대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당시 대가야왕이었던 荷知가 남제에 사신을 파견한 시기가 건원 원년(479)이므로 대략 서기 5세기 중엽부터는 대가야의 수장 또한 阜岐號

66) 전영래, 앞의 논문, 146쪽.

67) 김태식, 앞의 책, 251쪽.

68) 김세기, 『대가야의 발전과 주변제국』, 『대가야와 주변제국』, 고령군·한국상고사학회, 2002, 87쪽.

대신에 왕호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대가야는 고령 지산동에 직경이 40m가 넘는 거대한 규모의 고분을 조영할 정도로 매우 강성하였다.

이처럼 대가야의 성장에 따라 독자적인 대외 교역 창구로서 주목된 지역이 바로 다사진=대사(경남 하동)였다.⁶⁹⁾ 이 지역은 지리적 이점 때문에 백제나 가야가 ‘朝貢津路’·‘朝貢津涉’으로 삼을 정도로 대외 교역의 중심지역 역할을 하였는데, 이미 서기 4세기 후반인 신공 50년(370), 즉 백제 근초고왕이 남방 지역을 평정한 바로 이듬해부터 대외 교역로로서 이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하동 지역은 처음 백제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그런데 무령왕 13년(513) 6월 이전 어느 시기엔가 대사(하동)가 대가야의 영역이 되었던 것이다.

적어도 사료 ㉔ 11월의 내용으로 보건대, 무령왕 13년(513) 11월 이전까지는 대가야의 영역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가라의 荷知王이 남제에 사신을 파견하였던 것을 보면,⁷⁰⁾ 늦어도 서기 479년 이전에 대가야의 영역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좀 더 빠르면 백제 개로왕 때의 고구려 공격(475)을 틈타 대가야가 대사(하동)에 진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야는 사료 ㉔에서 조공길로 쓰던 항구라고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사료 ㉔처럼 무령왕 14년(514) 3월에는 자탄과 대사에 성을 쌓아 만해에 연결하고 봉화와 무기 창고를 만드는 등의 방어 체계를 갖추었던 것이다.

이때의 자침은 『일본서기』 흠명 2년(541) 4월·5년 11월과 23년 정월에

69) 『삼국사기』 34, 「잡지」 3, 지리 1, 강주 하동군. 한편 多沙는 경남 하동, 帶沙는 대구시 달성군 다사면의 多斯(梅谷)·河濱(縣內)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천관우, 앞의 책, 43~44쪽).

70) 대가야가 하동에 이르는 통로는 세 가지를 상정되는데, 첫째는 고령→합천→삼가→진주→하동 코스이고, 둘째는 고령→거창→함양→산청→진주→하동 코스이며, 셋째는 고령→거창→함양→남원→섬진강→하동 코스인데 이 중 세 번째 코스가 가장 타당성이 있다(田中俊明,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 1992, 75~77쪽).

보이는 子他와 같은 곳으로, 『삼국사기』 지리지에 居陁로 나오는 진주 또는 거창과 漆吐縣이나 『삼국지』 변진의 弁辰接塗國에 해당하는 칠원⁷¹⁾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칠원은 함안·창원·김해로 연결되는 남부 가야에 속하며, 서기 530년을 전후로 南加羅(김해)·喙己吞 등이 신라에 병합된 뒤인 흘명 2년(541)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이를 진주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 사료 ㉔의 계체 7년 11월에 반파(대가야)가 백제에게 기문(남원)을 빼앗긴 다음해 3월 사료 ㉕처럼 자탄에 성을 쌓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자탄이 곧 남원→함양→거창→고령의 교통로에 위치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로의 흐름상 진주보다는 거창 쪽이 유력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탄을 거창, 대사를 하동으로 보면, 대가야는 거창에 축성하여 소백산맥을 넘어 백제로 통하는 육십령로를 막고, 하동에 축성하여 지리산 남쪽을 건너 백제로 통하는 남해안로를 막아 자기 세력권을 공고히 정비한 것을 뜻한다.⁷²⁾ 아울러 사료 ㉖의 무령왕 14년(514)에 반파국(대가야)이 子吞과 대사에 성을 쌓아 왜에 대비하였다는 사실과 사료 ㉗의 무령왕 15년(515)에 왜인 物部連이 대사강에서 반파국의 군대에 의해 쫓겨났다고 하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여전히 대사(하동)를 대가야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사료 ㉘의 무령왕 16년(516)에 백제가 “기문의 땅을 준 것을 사례”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대사 지역이 서기 515년 이후에 다시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사를 놓고 백제와 경쟁을 벌이던 대가야는 사료 ㉕처럼 신라와 손을 잡고 대응하려는 모습을 취하였던 것이다. 대가야에게도 다사진은 대외 교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구였기에 쉽사리 포기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한 상실감이 매우 컸기에 원망과 함께 대외 관계의 변화까지 시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삼국사기』의 법흥왕 9년

71) 전영래, 『南原草村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書』, 1981, 76쪽.

72) 이와 관련하여 滿溪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이들 城들이 “일본에 대한 대비”라기 보다는 오히려 “백제에 대한 대비”였다고 하겠다.

(522)에 대가야가 신라의 왕녀를 맞이하여 부인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사를 상실한 후 6년 만에 대가야는 신라와 결혼 동맹을 통해 백제의 섬진강 하류역 진출을 견제하려고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서기 5세기 후반의 대산성(임실) 전투를 기점으로, 서기 6세기초 무령왕(501~523) 때에는 남원(기문)~하동(다사)의 섬진강 전 유역을 영역화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웅진 천도 후 적극적으로 전개된 남방 정책의 성과이며, 더불어 하동(다사)의 재점유는 진주·함안 등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는 군사 전략상의 교두보 확보라는 점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7. 맺 음 말

지금까지 백제의 웅진 천도 후 남방에 대한 진출과 영역화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백제의 남방 진출은 이미 근초고왕(346~375) 때 시작된 것이지만, 南征과는 별도로 이후 이 지역을 유효한 영역으로 전환시키려는 필요성과 노력은 계속 제기되었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백제는 전지왕(405~420) 때 “동한의 땅(東韓之地)”을 새롭게 개척하였다고 나오는데, 이 림(임실)·감라(남원)·고난(곡성)의 ‘동한지지’는 섬진강 상류, 전라도 내륙의 지역으로서 백제가 소백산맥을 넘어서 함양→거창→합천이나 함양→산청→진주 등으로, 섬진강으로 남하해서는 하동→진주→함안으로 진출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후 백제는 정변에 의한 비유왕(427~455)의 죽음과 개로왕(455~475)의 등장 그리고 고구려의 한성 침공(475) 등으로 혼란에 빠져 지방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백제의 본격적인 남방 지배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지만 웅진

으로 천도한 이후 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웅진 천도 초기의 혼란을 진압한 동성왕(479~501)은 왕권 강화를 바탕으로 다시 남방 진출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첫 시도가 바로 대산성 전투(임실; 487)였다. 이를 통해 섬진강 상류 지역에 진출하게 되었고, 그 결과 동성왕 11년(489)에는 ‘남해촌인’으로 표현된 일단의 유력자가 복속을 청하는 등 백제의 영향력이 다시 남방의 재지 세력들에서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백제는 동성왕 12년(490)과 17년(495)에 김제·광주·나주 등 여러 지역에 王·侯制를 실시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나아가 동성왕 20년(498)에는 탐모라(강진·해남)를 복속시키기에 이른다.

한편 동성왕의 뒤를 이은 무령왕(501~523)은 서기 508년에 바다 건너 탐라(제주도)를 복속시키는 한편, 대가야와의 전투를 통해 기문(남원)으로부터 대사(하동)에 이르는 섬진강 전 유역을 영역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공은 웅진 천도 이후 적극적으로 전개한 남방 정책이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하동(다사) 지방의 재점유는 남해안을 통한 대외 교통로의 장악과 함께, 진주·함안 등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군사 전략상의 교두보 확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원고투고일 : 2006. 9. 26, 심사완료일 : 2006. 11. 16)

주제어 : 동성왕, 무령왕, 이림, 탐라, 기문

<ABSTRACT>

Southern Territories of *Ungjin*, *Baekje* Period

Kim, Byung-nam

This study aims to research how the southern territories of *Baekje*(百濟) was changed in the *Ungjin* Period.

First of all, the period of King *Dongseong*(東城王), the southern area of *Baekje* started to advance into *Irim*(爾林; Imsil) in the upper area of *Seomjin* River(蟾津江) in the 9th of King *Dongseong* and into *Gwangju*(光州) and *Naju*(羅州) in the 17th(495). Then, in the 20th, *Baekje* subdued *Tammora*(耽牟羅; *Gangjin* & *Haenam*), and 10 years after that, *Tamra*(耽羅; *Jejudo*) on the southern ocean, also, was subdued.

During the reign of King *Muryeong*(武寧王), *Baekje* attacked against the great *Gaya* and expanded its territory to the areas of the *Seomjin* River ranging from *Gimun*(己汶; Namwon) to *Daesa*(帶沙; Hadong). This means the achievement of the southern policy that *Baekje* aggressively had developed after the transfer of the capital to *Wungjin*. Furthermore, the occupation of *Daesa*(Hadong) means having a command of the communication with *Wae*(倭) through the Southern Sea and securing the strategic bridgehead to advance to the areas of the *Nakdong* River, including *Jinju* and *Haeman*.

As a result, during the reign of King *Dongseong* and King *Muryeong*, overcame the confusing periods of King *Munju*(文周王) and King *Samgeun*(三斤王) and more firmly expanded their territory to the province of

Jeollado(全羅道) in the south, and *Baekje* got the recognition that 'Baekje became a powerful country' from surrounding countries.

Key Words : King *Dongseong*, King *Muryeong*, *Irim*, *Tamra*, *Gimun*

K C I